올해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모 총력

익산시, 전담 부서 조성
KTX 익산역 등 3곳 대상

익산시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목표로 작년 말부터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공모 선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를 준비하는 지역은 모두 3곳으로 유라시아 철도역을 위한 KTX익산역(복합환승센터) 서편, 인화동 남부시장 주변, 신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중동 시청사 일원이다.

공모 선정을 위해 시는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각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KTX익산역 서편 지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연계한 농·생명분야 육성,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역으로서의 국제물류 내륙교통 관문기능 역할의 강화를 위한 新경제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남중동 시청사 일원은 LH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신청사 리뉴얼사업"과 연계하여 녹지 축 형성, 세대어울림센터 조성,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시민 친화적인 도시재생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민협의체 회의, 행정협의회,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구체화하여 5월 공모에 3곳을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중만 건설국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주민공동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재생 혁신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거버넌스 체제구축 및 자율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전문가들, 주민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주민과의 대화 성료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 구축 등 올 핵심 현안 소개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2019년 주민과의 대화가 지난 4일 마동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중앙동을 시작으로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정 시장은 5,000여명의 시민들을 만나 직접 익산시 역점추진 사업을 설명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익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익산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유라시아 철도 거점 기반 구축 ▲꿈이 실현되는 일자리 도시 ▲신·구도심 균형발전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익산 만들기 등을 2019년 5대 핵심 프로젝트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활기 넘치는 익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우범지역 가로등 및 CCTV설치, 장마철 대비 배수로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으로 응대했다.

마을회관, 복지관 건립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는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안내하며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등 세심함을 보이기도 했다.

정 시장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익산 발전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때 지속가능한 것이기에 30만 익산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 개선 방안 모색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추진 지원사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시 고용위기 지원센터와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추진했으며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환 호원대 교수의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은 후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사업추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김강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강호 연구위원은 "고용위기지역의 국내 및 해외 사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위기 심화를 반영한 대응체계와 지역별 차이에 따른 위기대응 전략, 중장기 대응전략을 위한 거버넌스 등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광일 카라 기업대표, 김병오 GM퇴직근로자 대표, 이영주 전북인력개발원장, 김선화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지역 고용시장에 미친 효과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전광일 대표는 "지난 한 해는 정부와 군산시의 금융 및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버틸 수 있었다"며 "위기를 극복하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확신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성과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개선사항 및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고용안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농가피해 유발 병충해 방제에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외국에서 유입돼 치명적인 농가피해를 입히고 있는 화상병, 곰보병, 돌발해충에 대한 전면적인 방제약제 지원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병해충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전 접수된 화상병 23농가 16ha, 곰보병 22농가 8.2ha, 돌발해충 61농가 34.3ha 전 면적에 방제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방제 약제선정과 PLS 등 농약안전사용, 과수 병해충 방제 요령교육도 실시됐다.

문현조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과 곰보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심하면 수확량이 75~100%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왕궁리 탑리마을 가로경관 개선사업 착공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고도지구인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인근 왕궁리 탑리마을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이달 초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왕궁면 왕궁리 탑리마을 안길 가로변의 노후된 도로와 담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백만원과 지방비 4천5백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발주, 이달 초 본격 착공한다.

특히 사업은 오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익산문화재 야행과 연계하여 주민 정주여건 및 백제왕도 고도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시는 올해 초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발주, 입찰을 완료하여 시공업체를 결정하였으며, 이달 초 본격 착공해 기존 담장 철거와 보수 정비 및 안길포장 공사를 진행하여 3월말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문화재 야행과 연계하여 이번 고도지구 탑리마을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간 문화유산으로 규제받던 마을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탑리마을 가로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군산시, 관내 대형건설공사 시공업체 간담회 개최

군산시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내 대형건설공사 26개 시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2019년도 건설경기 전망과 중앙정부 및 군산시의 SOC 예산 투입계획을 전달하고 관련예산의 적극적인 반영을 약속했다.

또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건설 산업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건설업이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는 공통의식을 같이 하고 관내 생산업체의 건설자재와 BUY군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내에는 종합건설업 67개, 전문건설업 381개, 건설자재생산 83개 업체가 등록되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해경, 새조개 포획 불법행위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최근 들어 새조개를 포획하기 위한 불법어업 행위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 다이버, 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 행위 ▲불법어획물 사매매 등 불법유통 행위 등 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또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시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계획이다.

서정원 서장은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갯벌 속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조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경까지 바닷속 황토 흙이 섞인 모래 갯벌에 군락을 이루며 겨울 한철 별미 횟감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어 군산해경은 지난 설 연휴 시기에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3건에 4명을 검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